

BASF 정전사고로 PS 가격상승

일리노이주 PS 플랜트 가동중단 ... 수급타이트 심화에 가격강세

BASF의 미국 일리노이주 Joliet 소재 PS(Polystyrene) 10억파운드 플랜트의 정전사고로 PS 수급이 더욱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.

또 북미의 PS 생산기업들은 BASF 사고를 계기로 2004년 7월 PS 가격인상을 추진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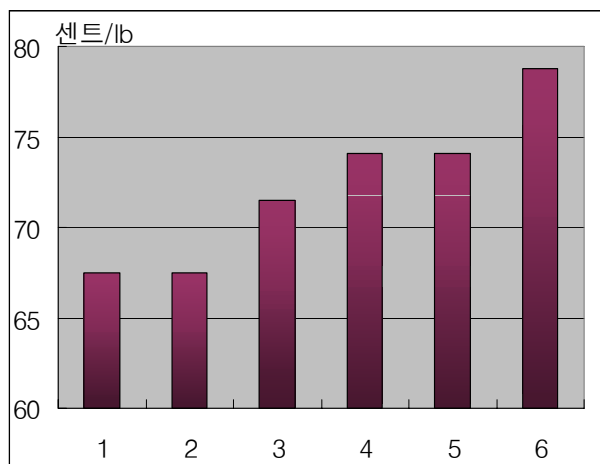
BASF의 PS 플랜트는 북미 지역 생산능력의 12%를 차지하고 있는데 2004년 5월30일 낙뢰로 인해 가동이 중단됐다.

BASF는 불가항력(Force Majeure)을 선언했으며 2004년 7월 중순까지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.

북미에서는 PS 생산 및 가공기업들이 원료코스트 변동을 우려해 재고량을 낮춘 상태여서 BASF 플랜트의 정전은 PS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격상승을 초래하고 있다.

북미 PS 가격은 2004년 들어 원료코스트 상승 및 수요강세로 파운드당 11센트 상승해 6월 현재 78-79센트에 달했다.

미국의 PS 가격(2003)



PS 생산기업들은 2004년 5월1일의 파운드당 4센트 인상결정을 실행하고 있으며, BASF 정전 사태 이전에 2004년 7월1일 기준으로 3센트 추가인상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.

북미의 PS 수요는 2004년 초 약세로 시작했으나 4월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5월에는 수급이 타이트해졌는데 Dow Chemical은 2004년 PS 수요가 3-3.5%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PS 생산기업들은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원료코스트 상승으로 마진 압박을 받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7/28>